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5월 4일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훈련은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대구경장거리방사포, 전술유도무기운영능력과 화력임무수행정확성, 무장장비들의 전투적성능을 판정검열하고 이를 계기로 전군을 명사수, 명포수운동으로 더욱 힘있게 불리일으키며 경상적인 전투동원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훈련지도를 받게 된 전연과 동부전선방어부대 군인들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시소에서 구경별 화력타격수단들의 화력타격계획을 료해하시고 대구경장거리방사포들과 전술유도무기의 화력진지진출과 전개를 비롯한 사격준비과정을 검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몸소 지켜주신 명사수, 명포수운동의 봉화를

추켜들고 곳은날, 마른날 가림없이 실전을 대비해 훈련해온 군부대 군인들은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번개같이 기동하여 화력타격준비를 끝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화력타격순차와 방법을 정해주시고 사격명령을 내리시였다.

천둥같은 폭음이 터지고 번개같은

섬광속에 시별건 불줄기들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 어떤 세력이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우리의 생존권을 해치려든다면 추호의 용납도 없이 즉시적인 반격을 가할 영웅적조선인민군의 결결한 의지를 과시한 훈련은 가슴후련하게 끝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

대가 현대적인 대구경장거리방사포들과 전술유도무기운영을 정말 잘한다고, 모두가 명포수들이라고, 현대적인 무기체계에 정통하고 훈련을 강도높게 진행한 결과 그 어떤 정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임무수행능력을 갖추었다고 치하시면서 예고없이 불의에 조직한 화력타격훈련이 성과적으

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언제 어느 시각에 명령이 하달되어도 즉시 전투에 진입할수 있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있는 전연과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신속반응능력에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인민군대의 작전전투훈련을 개선강화해나가는데서 나오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철리를 명심하고 그 어떤 세력들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도 나라의 정치적자주권과 경제적자립을 고수하고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안전을 보위할수 있게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투력강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즐기치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

본사기자

